

유란시아서

<< [제 66 편](#) | [부분](#) | [내용](#) | [제 68 편](#) >>

제 67 편

행성의 반란

67:0.1 (754.1) 과거의 어떤 중대한 시대에 관한 지식, 특히 행성에 반란이 일어난 것과 그 결과에 관한 지식이 없이 **유란시아**에서 인간의 존재와 연결된 문제들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비록 이 동란은 유기체 진화의 걸음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았어도, 사회의 진보와 영적 발전의 과정을 두드러지게 수정하였다. 행성의 초물리적 역사 전체가 이 파괴적 재난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1. 칼리가스티아의 배반

67:1.1 (754.2) **루시퍼**의 조수, **사탄**이 한 번 정기 검열로 방문했을 때, 30만 년 동안 **칼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를 책임지고 있었다. **사탄**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사악한 위풍을 그린 너희의 풍자 만화들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눈부신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놀라지 말지니, 바로 **사탄**은 눈부신 빛의 생물이라.”

67:1.2 (754.3) 이 검열을 받는 중에 사탄은 루시퍼가 그때 제안한 “자유 선언서”를 칼리가스티아에게 알려 주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영주는 반란이 선포되고 나서 행성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찬성하였다. 지역 우주에 충성하는 성격자들은, 미리 계획하여 이렇게 신뢰를 저버린 것 때문에, 칼리가스티아 영주를 특별히 멸시한다. 창조 아들은 이러한 경멸을 이 말씀으로 표현했다: “너는 너의 지도자 루시퍼와 같으니, 그는 죄가 가득하여 불의(不義)를 지속하였느니라. 진실 가운데 거하지 않았은즉, 그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부터 왜곡하는 자였더라.”

67:1.3 (754.4) 한 지역 우주의 어떤 행정 사무에서도, 새로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복지와 안내를 책임지는 행성 영주에게 맡긴 것보다 더 신성하게 생각되는 높은 직무는 없다. 그리고 온갖 형태의 악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가 신임하는 친구들에게 불충하는 것보다 성격의 지위를 더 파괴하지 않는다. 깊이 숙고하여 이 죄를 저지르면서, 성격이 아주 완전히 비뚤어졌기 때문에, 칼리가스티아의 머리는 그 이후로 결코 다시 균형을 완전히 찾을 수 없었다.

67:1.4 (754.5) 죄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우주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죄는 알면서 우주의 현실에 저항하는 성격자의 태도이다. 잘못된 현실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악한 것은 우주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이루거나 그 현실에 그릇되게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신의 실체에 일부러 저항하는 것 — 멀쩡한 정신으로 영적 진보를 반대하는 것 — 이요, 한편 불의는 인식된 현실에 대하여 드러내 놓고 끈질기게 항거하는 것, 우주에서 미친 짓에 가까이 가도록 성격이 붕괴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67:1.5 (755.1) 잘못은 지능이 날카롭지 못함을 가리키며, 악(惡)은 지혜가 모자람, 죄는 지나친 영적 빈곤을 가리킨다. 하지만 불의(不義)는 성격자의 통제력이 사라진 것을 가리킨다.

67:1.6 (755.2) 그리고 죄를 아주 여러 번 선택하고 아주 빈번히 되풀이할 때, 죄는 버릇이 될 수 있다. 습관으로 죄를 저지르는 자는 쉽게 불의하게 되고, 우주와 거기 있는 모든 신다운 실체에 대항하여 마음을 다하여 모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온갖 형태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불의에 굳어진 자가 언제라도 그릇된 행동 때문에 진지하게 슬픔을 맛보거나 죄의 용서를 받아들일까 우리는 의심이 든다.

2. 반란이 터지다

67:2.1 (755.3) **사탄**의 검열이 있던 뒤에 조금 있다가, 그리고 행성 행정부가 **유란시아**에서 바야흐로 대단한 성과를 얻으려 하기 직전에, **칼리가스티아**는 동료 **달리가스티아**와 오랫동안 연장된 회담을 가졌고, 그 뒤에 **달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의 10개 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집회는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자신이 **유란시아**의 절대 군주이라 선포하려고 한다는 발표로 시작되었고, 행성 정부가 다시 조직되고 행정 권한을 가진 직책들이 나중에 다시 분배될 때까지, 모든 행정 집단이 모든 기능과 권력을 수탁자인 **달리가스티아**의 손으로 넘겨줌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67:2.2 (755.4) 이 놀라운 요구가 발표된 뒤에, 최고 조정 회의의 의장, **반**의 대가다운 호소가 뒤따랐다. 탁월한 행정관이자 유능한 이 법학자는 **칼리가스티아**가 제안한 과정이 행성의 반란에 가까이 가는 행위라고 낙인을 찍고, **사타니아**의 **체계 군주 루시퍼**에게 상소(上訴)

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회의에 참석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참여를 삼가라고 호소했는데, 그는 참모진 전부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상소가 **예루셈**으로 올라갔는데, 당장에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에서 최고 군주라고 지명하며 그의 지침에 절대로, 도전하지 말고 충성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이 돌아왔다. 이 놀라운 소식에 답하여, 기품 있는 **반**은 일곱 시간에 걸쳐 기억에 남을 연설을 했으며, 이 연설에서 **달리가스티아 · 칼리가스티아 · 루시퍼가 네바돈** 우주의 통치권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정식으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지지와 확인을 받으려고 호소했다.

67:2.3 (755.5) 그동안에 체계의 회로들이 단절되었고, **유란시아**는 고립되어 버렸다. 행성에 있는 하늘 생명의 무리는 모두 갑자기 아무 경고 없이 고립되고, 어떤 외부의 상담과 조언도 받지 못하게 완전히 단절된 것을 발견했다.

67:2.4 (755.6) **달리가스티아**는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의 하나님**이요 만민 위에 최고”라고 선포했다.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되자, 논쟁의 선이 뚜렷하게 그어졌다. 각 집단은 자기들끼리 물러나서 심의를 시작했고, 이 논쟁은 결국 행성에 있던 모든 초인간 성격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

67:2.5 (755.7) 세라핌과 케루빔과 기타 하늘 존재들이 이 모진 싸움에, 길고도 죄 많은 이 투쟁의 결정에 말려들었다. **유란시아**가 고립될 때 **유란시아**에 어찌다가 있었던 많은 초인간 무리가 여기에 묶여 있었고, 세라핌과 그 동료들처럼, 죄와 올바름 사이에 — **루시퍼**의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 사이에 —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다.

67:2.6 (756.1) 7년이 넘도록 이 싸움이 이어졌다. 관련된 모든 성격자가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에덴시아** 당국은 간섭하거나 끼어들려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그때가 되기까지, **반**과 충성스러운 동료들은 그들이 정당한 것을 확인받거나, 오래 끌었던 걱정과 견딜 수 없는 불안에서 풀려나지도 못했다.

3. 중대한 7년

67:3.1 (756.2) **사타니아**의 수도, **예루셈**에서 반란이 터진 것을 **멜기세덱** 회의가 방송했다. 비상시 **멜기세덱**들이 즉시 **예루셈**에 파송되었고, **가브리엘**은 권한을 도전받은 **창조 아들**의 대표로서 행동하겠다고 자원하였다. **사타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난 사실이 방송되는 것과 함께, 그 체계는 자매 체계들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었다. “하늘에서,” **사타니아**의 본부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지역 체계의 어느 행성에나 퍼졌다.

67:3.2 (756.3) **유란시아**에서 1백인의 유형(有形) 참모진 가운데 40명이 (**반**을 넣어서) 반란에 가담하지 않으려 했다. 참모진의 많은 인간 조수(수정된 사람 및 다른 사람들)도 또한 **미가엘**과 그의 우주 정부를 용감하고 고귀하게 방어한 자였다. 세라핌과 케루빔 사이에서 성격자들이 끔찍하게 분실되었다. 행성에 배치된 행정 및 과도기 세라핌 가운데 거의 절반이 **루시퍼**의 운동을 지지하여, 그들의 지도자 및 **달리가스티아**와 합세하였다. 1차 중도인(中道人) 중에서 40,119명이 **칼리가스티아**와 손을 잡았으나 이 존재들 가운데 나머지는 맡긴 책임에 충실한 채로 남아 있었다.

67:3.3 (756.4) 배반한 **영주**는 불충한 중도인과 기타 무리의 반란 성격자들을 집결시키고 그들이 그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조직했고, 한편 **반**은 충성하는 중도자와 기타 충실한 무리를 모으고 행성 참모진과 버려진 다른 하늘 성격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큰 전투를 시작했다.

67:3.4 (756.5) 이 투쟁이 있던 시기에 충성파는 **달라마시아** 동쪽에 몇 킬로미터 떨어져, 담이 없고 보호가 잘 되지 않은 촌락에 거주했다. 그러나 깨어 있고 항상 지키는 충성하는 중도인들이 그들의 주거를 낮에도 밤에도 경계했고, 그들은 귀중한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67:3.5 (756.6) 반란이 터지자, 충성하는 케루빔과 세라핌들은 충실한 중도자 3명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나무의 관리를 맡았고, 오직 참모진에서 충성파 40명,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수정된 필사자들이 이 에너지 식물의 열매와 잎을 먹도록 허락했다. 참모진의 동료인 이 수정된 **안돈** 족속은 56명이 있었고, 불충한 참모진에서 **안돈** 수행원 16명은 주인을 따라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67:3.6 (756.7) **칼리가스티아** 반란이 터졌던 중대한 7년에 걸쳐서 내내, **반**은 사람 · 중도자 · 천사로 이루어진 그의 충성스러운 군대를 보살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흔들림 없이 우주 정부에 그렇게 충성하는 태도를 **반**이 유지하게 한 그 영적 통찰력과 정신의 확고함은 맑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 논리적 판단, 진지한 동기, 사심 없는 목적, 지적 충성, 체험의 기억, 단련받은 인품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의심하지 않고 헌신한 데서 생긴 산물이었다.

67:3.7 (756.8) 기다리는 이 7년은 마음을 살피고 혼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한 우주의 사무에서 그러한 위기는 영적 선택의 한

요인으로서 지성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는가 보여준다. 교육·훈련·체험은 진화하는 모든 도덕적 인간이 내리는, 생사를 좌우하는 대부분의 결정에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길에 충성으로 헌신하는 놀라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전히 헌신한 인간 의지에게 능력을 주도록, 깃드는 영이, 인격의 결정하는 힘과 바로 접촉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반**의 수정된 인간 동료, **아마돈**의 체험에서 일어났다.

67:3.8 (757.1) **아마돈**은 **루시퍼** 반란에서 뛰어난 인간 영웅이다. **안돈**과 **폰타**의 이 남자 후손은 **영주**의 참모진에게 생명질(生命質)을 기여한 1백인 중에 하나였고, 그 사건 이후로 늘, **반**에게 동료이자 인간 조수로서 부속되었다. 길고도 벅찬 투쟁을 통해서 내내, **아마돈**은 두령의 편에 섰다. 7년에 걸친 투쟁 전체를 통해서, **아마돈**과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머리가 명석한 **칼리가스티아**의 온갖 속이는 가르침에 불굴의 정신으로 저항하는 동안에, 진화 종족의 출신인 이 사람이 **달리가스티아**의 꾀변에 고떡하지도 않고 버틴 것은 감격스러운 광경이었다.

67:3.9 (757.2) 최대의 지능, 그리고 우주 사무에서 광대한 체험을 가진 **칼리가스티아**는 잘못된 길에 빠졌다 — 죄를 품었다. 최소의 지능을 가지고 우주 체험이 전혀 없는 **아마돈**은 우주에 봉사하는 일에 굳게 견디고, 동료에게 굳게 충성하였다. **반**은 지적 결의와 영적 통찰력을 멋지고 효과 있게 조합한 가운데 지성과 영을 이용했고, 이렇게 함으로 인격의 실현을 체험하는 수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에 도달했다. 지성과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 초인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아니 상물질 실체도, 창조하는 가능성이 된다.

67:3.10 (757.3) 이 비극의 시절에 술렁이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 그러나 드디어 마지막 성격자가 최종 결정을 내렸고, 그때,

그러나 그제서야, **에덴시아**의 **최고자** 한 분이 **유란시아**에서 권한을 몰수하려고 긴급 **멜기세덱**들과 함께 도착했다. **칼리가스티아**가 군림했던 전체 모습을 적은 기록은 **예루셈**에서 지워졌고, 행성을 복원시키는, 시험 시대가 막을 열었다.

4. 반란 이후에 칼리가스티아 1백인

67:4.1 (757.4) 마지막 출석을 불렀을 때,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들은 다음과 같이 줄을 선 것이 발견되었다. **반**과 그의 조정 법정 전부가 충성한 채로 남아 있었다. **앙**과 식량 회의에서 세 참모는 살아남았다. 동물 사육 위원회는 다 반란에 휩쓸렸고, 마찬가지로 동물 정복 고문들도 다 그렇게 되었다. **팻**과 교육 직원에서 다섯 참모가 구제되었다. **놏**과 산업 및 무역 위원회는 모두 **칼리가스티아**와 합세하였다. **합**과 계시 종교 대학 전부가 **반**과 그의 고귀한 집단과 함께 충성한 채로 남았다. **룻**과 건강 위원회 전부가 분실되었다. 예술 및 과학 회의는 전부 충성한 채로 남았지만, **툏**과 부족 정부 위원회는 모두 분실되었다. 이처럼 1백인 가운데 40명은 구제되었고 나중에 **예루셈**으로 옮겨갔으며, 거기서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67:4.2 (757.5) 행성 참모진에서 반란에 동조한 60명은 **놏**을 지도자로 뽑았다. 그들은 모반하는 **영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일했지만, 체계의 생명 회로가 주는 영양을 빼앗긴 것을 곧 발견했다. 그들은 필사 존재의 지위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정말로 초인간이었지만, 동시에 물질이고 필사자였다. 그들의 수를 늘이려는 노력으로, **달리가스티아**는 최초의 60명과 수정된 **안돈** 동료 44명이

머지않아 죽음으로 사라질 운명을 가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즉시 성교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했다. **달라마시아**가 멸망한 뒤에, 불충한 참모들은 북쪽과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들의 후손은 **놏** 족속으로, 그들이 거하던 곳은 “**놏의 땅**”으로서 오랫동안 알려졌다.

67:4.3 (758.1) 반란으로 인하여 버림받고 지상의 아들딸과 곧 짝을 지은 이 비범한 초인간 남녀들의 존재는 신들이 필사자들과 짝지으려고 내려왔다는, 전설의 이야기를 쉽게 낳았다. 이처럼 신화(神話)의 성질을 가졌지만, 반란 이후 시절의 사실에 근거를 둔 수많은 전설이 생겨났다. 이것은 조상이 **놏** 족속 및 그 후손들과 이렇게 접촉한 다양한 민족의 민속 이야기와 전통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67:4.4 (758.2) 영적 영양을 빼앗긴, 모반한 참모들은 결국 자연사로 죽었다. 나중에 인류의 우상 숭배의 상당한 부분은 **칼리가스티아** 시절에 상당히 존경받았던 이 존재들의 기억을 지속하려는 소망에서 생겨났다.

67:4.5 (758.3) 참모진 1백 명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임시로 **생각 조절자**와 분리되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도착하고 나서 즉시, 충성한 인격자들은 (**반을 빼고**)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기다리던 **조절자**와 다시 뭉쳤다. 우리는 반역한 참모 60명의 운명을 모른다. 관계된 **조절자**들은 아직도 **예루셈**에서 기다린다. **루시퍼** 반란 전부가 마침내 판결되고 모든 참가자의 운명이 선포될 때까지, 의심할 여지없이, 문제는 지금 상태대로 남을 것이다.

67:4.6 (758.4) 천사와 중도자와 같은 존재들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처럼 찬란하고 신임받는 통치자가 길을 잃는 것 — 배반 죄를 저지르는 것 — 을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죄에 빠진 자들은 — 일부러 또는 미리 계획하여 반란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

신임했던 지도자들에게 속은 자기 상관들에게 잘못 끌려갔다.
원시적으로 생각하는 진화된 필사자의 지지를 얻는 것은 똑같이 식은
죽 먹기였다.

67:4.7 (758.5) **예루셈**과 잘못에 빠진 여러 행성에서 **루시퍼** 반란의
희생자가 된 모든 인간 및 초인간 존재의 대다수는 진심으로 어리석은
짓을 뉘우친 지 오래다. 그리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사타니아**
반란 사무의 판결을 아주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들이 마침내 판결을
마칠 때, 진지하게 뉘우친 모든 그러한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고, 우주의 어떤 단계에 봉사하도록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참으로 믿는다.

5. 반란의 직접 결과

67:5.1 (758.6) 반란의 선동이 있는 뒤에, **달라마시아**와 그 근처에서 거의
50년 동안 큰 혼란이 휩쓸었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온 세계를 다시
조직하는 일이 시도되었다: 문화를 증진하고 종족을 개량하는
정책으로서, 혁명이 진화를 대체하였다. **달라마시아**와 그 근처에 있던
우수하고 어느 정도 훈련받은 체류자들 사이에 문화적 지위의
갑작스러운 진보가 나타났지만, 바깥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 새로운
급진 방법을 시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민족의 수라장이
당장에 일어난 결과였다. 그 시절에 절반 진화된 원시인은 자유를
재빨리 방종(放縱)으로 풀이하였다.

67:5.2 (758.7) 반란이 있고 나서 바로 뒤에, 선동했던 참모진 전부가 반
야만인의 때에 대항하여 그 도시를 열심히 방어하는 데 말려들었고, 이
반 야만인들은 때 이르게 그들에게 가르쳐 준 자유주의의 결과로, 그

담을 포위했다. 그 아름다운 본부가 남쪽의 물결 밑에 가라앉기 몇 년 전에, 그릇 인도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달라마시아** 후배지(後背地)의 부족들이 반 야만스러운 공격으로 그 찬란한 도시를 이미 휩쓸었고, 탈퇴한 참모진과 그 동료들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67:5.3 (759.1) 개인과 집단에게 자유를 주자는 생각을 따라서 인간 사회를 즉시 다시 건설하려는 **칼리가스티아**의 계획은 재빠른 실패, 대체로 완벽한 실패인 것이 입증되었다. 사회는 급히 그 옛날의 생물학적 수준으로 가라앉았고, 혼란에 빠진 세계를 이 동란이 전보다 더 나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발전하려는 투쟁은 **칼리가스티아** 체제가 시작될 때 있었던 자리보다 그다지 앞서지 않은 데서 모두 다시 시작되었다.

67:5.4 (759.2) 반란이 있는 지 162년이 지나서 해일(海溢)이 **달라마시아**를 휩쓸었고, 행성의 본부는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찬란한 시대에 있었던 귀한 문화의 거의 모든 자취가 지워질 때까지, 이 땅은 다시 솟아나지 않았다.

67:5.5 (759.3) 세계의 처음 수도가 물에 잠겼을 때, 그 도시에는 **유란시아**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산각** 종족들만 살고 있었고, 이 배반자들은 **아버지**의 성전을 빛과 불의 거짓 신, **녹**에게 바친 사당(祠堂)으로 이미 바꾸어 버렸다.

6. 반 — 신념이 굳은 자

67:6.1 (759.4) **반**을 따르는 자들은 인도 서부의 고지로 일찍 물러났고, 거기서 혼란에 빠진 낮은 땅 민족들의 공격을 면했다. 그

은둔처로부터, 초기 **바도난** 선조가 **산직** 부족들이 태어난 시절 바로 전에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모두 영문 모르고서 한때 일했던 것 같이, 그들은 세계를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

67:6.2 (759.5)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인간사의 행정을 각자 4명으로 된 10개 위원회의 손에 맡겼고, 이 집단은 **영주**의 체제와 똑같았다. 거주하는 선임 **생명 운반자**들은 이 40인의 회의를 임시 지도하는 일을 맡았고, 이것은 기다리던 7년 동안 내내 활동했다. 충성한 참모 39명이 **예루셈**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돈** 족속의 비슷한 집단이 이 책임을 맡았다.

67:6.3 (759.6) 이 **아마돈** 족속은 **아마돈**이 속했던 충성한 **안돈** 사람 144명의 집단에서 비롯하였고, 이들은 그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집단은 남자 39명과 여자 10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56명은 불사(不死)의 지위를 가졌는데, 모두가 (**아마돈**을 제외하고) 참모진의 충성한 사람들과 함께 옮겨졌다. 이 귀중한 무리에서 나머지는 **반**과 **아마돈**의 지휘 하에 필사 시대가 끝날 때까지 땅에서 계속 있었다. 그들은 번식하고, 반란 이후 시기에 길고도 어두운 세월을 통해서, 세상을 위하여 지도력을 계속 마련해 준 생물학적 효소였다.

67:6.4 (759.7) **반**은 **아담**의 시절까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고, 행성에서 활동하는 모든 초인간 성격자에게 이름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반**과 **아마돈**은 15만 년이 넘도록, **멜기세덱**들이 베푸는 특화된 생명 봉사와 함께, 생명나무의 기법으로 목숨을 유지하였다.

67:6.5 (759.8) 선임 별자리 통치자, 곧 **놀라시아덱**의 **최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확인을 받고서, 행성 관리자였던 12명 **멜기세덱**의 회의가 **유란시아**의 사무를 오랫동안 관리했다. 한 자문 회의가 **멜기세덱**

관리자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렇게 구성되었다: 타락한 **영주**의 조수 중에서 충성파 1명,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 2명, 견습 훈련을 받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 1명, 자원하는 **교육 아들** 1명, **아발론의 찬란한 저녁별** 1명 (정기적으로), 세라핌의 우두머리와 케루빔의 우두머리, 두 이웃 행성에서 온 고문들, 하위 천사 생명의 총독, 중도인의 사령관 **반**. 이렇게 **유란시아**는 **아담**이 도착할 때까지 통치되고 관리되었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반**이, **유란시아**의 사무를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한 행성 관리자 자문 회의에서 한 자리에 배치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67:6.6 (760.1)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 12명은 영웅다운 일을 해냈다. 그들은 문명의 잔재를 보존했으며, **반**은 그들의 행성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했다. 반란이 있은 뒤 1천 년 안에, 그는 세계에서 널리 흩어진, 350개가 넘는 상급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명의 전진 기지 (基地)들은, **산각** 종족, 특히 청인과 **놏** 족속과 조금 섞인, 충성스러운 **안돈** 사람들로 대체로 구성되었다.

67:6.7 (760.2) 반란으로 끔찍한 좌절이 있었는데도, 땅에는 생물학상으로 장래가 보이는 좋은 핏줄이 많이 있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감독 하에, **반**과 **아마돈**은 계속하여 인류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돌보았고, 궁극에 **유란시아**로 **물질 아들**과 **딸**의 파견을 정당화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사람의 신체적 진화를 진척시켰다.

67:6.8 (760.3) **반**과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되기까지 땅에 남아 있었다.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예루셈**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반**은 그를 기다리던 **조절자**와 다시 합쳤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함, 그리고 모이고 있는 **필사 최후 군단**의

밝혀지지 않은 운명에 이르는 멀고 먼 길에서,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반**은 지금 **유란시아**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한다.

67:6.9 (760.4) **루시퍼가 유란시아에서 칼리가스티아를 지지한 뒤에, 반이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상소했을 때, 별자리 아버지들은 반이 주장하는 모든 쟁점에서 즉시 그를 지지하는 결정을 보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이 판결은 그에게 미치지 못했는데, 그 판결이 이동 중에 있을 때 행성의 통신 회로가 두절되었기 때문이다. 겨우 최근에야 이 실제 판결이 중계하는 에너지 송신자의 수중에 던져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거기서 그것은 유란시아가 고립된 이후로 죽, 버려진 채로 있었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이 조사한 결과로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판결의 발표는 유란시아가 별자리 회로에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행성간 통신에서 생긴 이 명백한 사고(事故)는 에너지 송신자들이 정보를 받고 보낼 수 있지만, 통신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다.**

67:6.10 (760.5) **사타니아의 법적 기록에서 반의 절차상 지위는 에덴시아 아버지들의 이 판결이 예루셈에서 기록될 때까지, 실제로, 최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7. 멀리 미치는 죄의 영향

67:7.1 (760.6) **생물이 빛을 일부러, 끈질기게 물리치는 것이 성격에게 주는 (구심적) 결과는 불가피하고 개인적이며, 오로지 신, 그리고 성격을 가진 그 생물에게만 관심거리이다. 그러한 불의(不義)의 수확,**

혼을 죽이는 수확은 의지를 가진 그 불의한 생물이 마음 속에서 거두는 것이다.

67:7.2 (761.1) 그러나 죄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다: 마음 속에 품은 죄의 비성격 (원심적) 결과는 불가피하고 집단에게 생기며, 영향을 미치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생물 모두의 관심거리이다.

67:7.3 (761.2) 행성의 행정이 붕괴된 뒤에 5만 년쯤 되어서, 지구의 사무는 너무나 분열되고 지연되어서 35만 년 이전에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했을 때 존재했던, 일반적 진화 상태보다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진보가 있었지만, 다른 방향에서 근거를 많이 잃었다.

67:7.4 (761.3) 죄의 효과는 결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주의 행정 구역들은 유기적이며, 모두가 한 성격자의 곤경을 어느 정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죄가 현실에 대한 그 성격자의 태도이니까, 우주 가치의 어떤 관련된 수준에서도, 본래부터 가진 그 부정적 수확을 드러내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 악행, 또는 죄 많은 계획이 낳는 총 결과는 오직 실제로 행하는 수준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우주 법칙을 어기는 것은 머리를 심각하게 쓰거나 영적 체험을 해치지 않고도, 물리적 영역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 죄가 그 존재 전체의 태도일 때, 머리가 선택하고 혼이 의도하는 것을 죄가 대표할 때에야 죄는 성격의 생존에 치명적 결과를 가득히 가져온다.

67:7.5 (761.4) 악과 죄는 그 결과를 물질 및 사회의 영역에서 쏟아부으며, 때때로 우주 실체의 어떤 수준에서 영적 진보를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지은 죄도 결코 남의 성격이 살아남는, 신이 준 권한이 실현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오직 머리가 내리는 결정과 개인 자신의 혼이 내리는 선택으로 인하여 위태롭게 될 수 있다.

67:7.6 (761.5) **유란시아**에서 죄는 생물학상의 진화를 늦추도록 기여한 것이 거의 없지만, **아담**의 유산에서 생기는 총 이익을 필사 종족들로부터 빼앗도록 작용했다. 죄는 지적 발전, 도덕적 성장, 사회의 진보, 대규모의 영적 달성을 엄청나게 늦춘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신성한 뜻을 진심으로 행하기를 바라든지, 죄는 그의 가장 높은 영적 달성을 막지 못한다.

67:7.7 (761.6) **칼리가스티아**는 모반을 일으켰고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지만, **유란시아**에서 그 뒤에 태어난 어떤 필사자도 이러한 실수 때문에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다. **칼리가스티아**의 반란이 있는 뒤에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모든 필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시간으로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혼들의 미래 복지는 결코 조금이라도 영원 속에 위태롭게 되지 않았다. 어느 누구나 남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지 않는다. 죄의 영향은 행정 · 지능 · 사회 분야에서 널리 미치는데도, 죄가 낳는 도덕적 죄책감이나 그 영적 결과는 온통 개인에게 일어난다.

67:7.8 (761.7) 어째서 그러한 대재난이 일어나도록 버려두는가 우리는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나, 지역 소동이 우주에 널리 반영되는 바와 같이, 그 소동이 유익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헤아릴 수 있다.

8. 반란 중의 인간 영웅

67:8.1 (761.8) **사타니아**의 여러 세계에서 많은 용감한 사람이 **루시퍼** 반란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구원자별**의 기록은 범람하는 선동의

물결을 **아마돈**이 영화롭게도 박차고, 흔들림 없이 **반**에게 헌신했으므로, **아마돈**을 체계 전체에서 뛰어난 인물로 묘사한다 —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미가엘 아들**의 통치권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였다.

67:8.2 (762.1) 이 중대한 보고서들이 작성될 때 나는 **에덴시아**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구원자별**의 방송을 살살이 읽으면서 맛보았던 흥분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다. **안돈** 종족에서 실험 중인 최초의 혈통에서 솟아나온, 옛날의 이 반(半)야만인이 보인 믿을 수 없이 확고한 태도, 초월적 헌신, 아름다운 충성심을 그 방송이 하루하루 알려 주었다.

67:8.3 (762.2) **에덴시아**로부터 **구원자별**을 거쳐, **유버르사**에도, 긴 7년 동안 **사타니아** 반란에 관해서 하위의 모든 하늘 생명이 던진 첫 질문은 항상, 언제나 이와 같았다: “**유란시아의 아마돈**이 무엇을 가졌기에, 아직도 끄떡하지 않고 버티는가?”

67:8.4 (762.3) **루시퍼** 반란이 지역 체계와 그에 딸린 여러 타락한 세계에 지장을 주었고, 이 **아들**과 그릇 인도된 동료들의 손실이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진보를 일시 방해했다면, 자연이 낳은 이 한 아이와 전우(戰友) 143명 집단의 굳센 행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발표한 효과를 저울로 재어 보아라. 불충한 상관들의 그렇게 엄청난 압력, 반대하는 압력에 부딪쳐서, 그들은 더 높은 우주 관리 및 행정 개념을 지지하여 곳곳하게 버티었다. 너희는 안심할지니, 이것은 **네바돈** 우주와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루시퍼** 반란의 모든 해악과 슬픔의 총합이 결코 능가할 수 없이 이미 좋은 일을 했다.

67:8.5 (762.4) 그리고 이 모두가, **파라다이스**에서 **필사 최후 군단**을 동원하고, 승천하면서 진보하는 필사자 — 흔들리지 않는 **아마돈**과 같은 바로 그러한 필사자 — 를 대체로 구성하는 보통 진흙에서 이

광대한 집단의 하인, 신비스러운 앞날의 하인들을 모집하려는
아버지의 우주 계획이 슬기로움을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비취 준다.

67:8.6 (762.5)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했다.]